

진보 정근식 '단일화', 보수 조전혁 러브콜 윤호상이 거절

서울시 교육감선거 '3파전' 전망

교육감 보궐선거 D-1

진보 진영 최보선 후보 사퇴
보수 윤호상 '선거 완주 의사'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3파전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진보 진영에서는 최보선(전 서울시 교육의원) 후보가 사퇴하면서 정근식 후보가 단일 후보로 최종 결정된 가운데, 보수 진영에서는 조전혁 후보가 윤호상(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공개 제안했지만, 이를 윤 후보가 사실상 거절했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전혁 후보는 전날 논평을 통해 "정근식 후보와 최보선 후보가 단일화를 성사했다. 보수 진영 역시 단일화를 통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서울 시민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라며 "진보좌파와 조희연이 망쳐 놓아버린 10년의 서울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윤호상 후보에게 맑고 투명한 단일화를 요청한다"라고 공개 제안했다.

앞서 진보 진영은 완전한 단일화에 성공했다. 최보선(전 서울시 교육의원) 후보는 지난 12일 "정근식 후보가 서울 교육을 책임질 적임자이자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후보"라고 평가하며 사퇴했다. 단, 사전투표와 16일 치러지는 본투표 모두 이미 투표용지 인쇄가 끝나 기표란에는 최 후보 사퇴 사실이 표



서울시교육감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4일 오전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뉴스1

시되지 않는다.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도 윤 후보에게 정책연대를 제안했다. 정책연대가 실현되면, 진보·중도 보수 진영이 단일화되고 조전혁 후보만 홀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게 정 후보의 주장이다. 조 후보와 정 후보가 양강구도를 이룬 상황에서, 최 후보의 지지율을 흡수하는 게 이번 선거를 판가름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보수'로 분류되지만, 지난달 25일 보수 단일화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는 단일화 후보를 뽑을 당시 윤 후보가 단일화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당시 조전혁 후보가 보수 단일화 후보로 추대됐다.

그러나 윤 후보는 선거 완주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비정

상의 서울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출마했으며 어떠한 타협 없이 소신껏 끝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겠다"라며 "서울 교육은 이제 진보, 보수, 좌, 우의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진영논리를 넘어서서 오로지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모두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는 서울 전체 유권자 832만 1972명 중 68만9460명이 참여해 최종 사전투표율 8.28%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종로구(10.52%)가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동작구(9.28%) ▲서초구(9.14%) 순으로 보수 걸집 지역 유권자들의 참여도가 높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김동연,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나서

경기도, 김 지사 단장으로 美 출국 22개 스타트업 관계자 31명 동행



도내 기업에 글로벌 투자유치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가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이 새싹기업(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국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5박 7일간 버지니아주와 뉴욕주 등 미국 동부지역을 방문한다.

김 지사의 미국 방문은 취임 후 세 번째로 이번 방문은 김 지사의 다보스포럼(2024 세계경제포럼) 참가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정부 인사로는 유일하게 이노베이터 커뮤니티에 초청을 받으며 세계적 스타트업과 인연을 맺었다.

이에 이번 경기도대표단과 함께 도내 22개 스타트업 관계자 31명이 동행해 UKF(United Korean Founders, 한인창업자연합)와 경기도-미주지역 간 스타트업 상호진출 지원을 위한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UKF는 미주지역 내 한인 기업가들이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단체다.

또 이들과 함께 UKF가 주최하는 '2024 NYC 스타트업 서밋'에 참가해

이번 방문에서는 실질적인 투자유치도 이뤄진다. 산업안전인증의 세계적 기업인 A사와 물류센터 투자 및 개발 플랫폼 외투기업인 B사와 투자협약을 추진 중이다.

국제교류협력분야에서는 버지니아주 지사와 뉴욕 주지사를 만나 첨단산업 등의 실질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버지니아주는 제조업과 첨단산업을 주요산업으로 하며 주요 데이터센터들이 있는 곳으로, 김 지사는 글렌 영킨(Glen Youngkin) 버지니아주지사 스타트업, 바이오 등 경기도 전략산업 및 미래 성장 분야 혁신동맹을 논의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대표 도시' 뉴욕주와의 교류도 이번 만남을 계기로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 주지사에게 경기도와 뉴욕주 간 스타트업 분야 물적지원과 인적·기술 교류와 경제협력을 제안할 예정이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방배5구역 체육센터 설계 공모작 선정

송민준의 '서울 토포그래피'

서울시는 서초구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부채납 부지에 건립할 다목적 체육센터 등의 설계공모에서 인터카드 건축사사무소(송민준)의 'SEOUL TOPOGRAPHY(서울 토포그래피)'를 당선작으로 뽑았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총사업비 약 743억원을 투입해 방배동 974-3번지 일대에 연면적 1만 5000㎡, 50m 8레인 규모의 수영장 갖출 다목적 체육센터와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당선작은 운동시설을 넘어 대지 전

체의 지형에 대한 오마주라는 개념으로 자칫 거대해질 수 있는 건물을 경사 지붕으로 감싸 부담감을 줄였고, 굴토를 최소화해 주변 공민들과의 경사 차이를 건축물로 연계했다.

또 도로변에 건축물의 전 층을 연결하는 밝고 생동감 있는 입체적 라운지를 계획하는 등 풍요로운 공공 공간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설계 공모 1등팀은 설계계약 우선 협상권을 가지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설계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150억 투입... 영화센터·창조산업허브 건립

서울시, 창업허브 등 인프라 구축 내년 9월 서울영화센터 개관 목표 2027년 서울창조산업허브 오픈

서울시가 문화와 기술, 창조성이 융합된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태계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자 창조산업과 창업허브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14일 시에 따르면, 창조산업 거점 확충을 위해 올해 서울영화센터와 서울 창조산업허브 건립에 약 15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내년 9월 서울 중구 마른내로 38에 국내 영상산업의 중심점이 될 서울영화센터를 개관한다는 목표다. 센터는 지하 3층~지상 10층, 연면적 4806㎡ 규모로 만들어지며, 상영관 3개소와 다목적실, 공유 오피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364억5300만원이며, 금년 예산은 62억1800만원이다.

또 시는 오는 2027년 7월 중구 소파로 126 일대에 창조산업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 서울창조산업허브의 문을 열 계획이다. 지하 4층~지상 3층, 연면적 1만6127㎡ 크기로 조성되며, 입주 공간, 전시장, 콘텐츠허, 라이브러리&카툰숍이 들어선다. 올해 86억7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총사업비는 957억 97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강화한다. XR(확장현실) 콘텐츠·디바이스 분야 우수 기업 10개사를 선발해 사업화(5000만원~1억5000만원)를 돕는다. XR 융합산업 부품-조립-서비스 실증 시스템 구축 및 기술 실증·시험 평가도 지원한다.

1인 미디어 창작자 그룹 '크리에이티브 포스트'도 지속 육성한다. 현재까지 시는 스튜디오 대여 484건, 채널 분석 포함 멘토링 56회, 장비 대여 206건, 브랜드 콘텐츠 249편 제작 등을 지원했다. 상상비즈아카데미에서는 4개의 하

반기 교육 과정 ▲오리지널 웹툰 개발 ▲웹툰 기획 PD ▲웹소설 입문·데뷔 A-Z 클래스 ▲2D·3D·기획 실무 애니메이션 수강생을 각 20명씩 선발해 수업을 운영 중이다.

이달 시는 XR 페스티벌 및 비즈니스 포럼·세미나를 개최하고, 오는 12월엔 크리에이티브 포스트 어워드를 열어 우수 크리에이티브에게 상을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서울창업허브 3개소 신규 조성을 추진한다. 구로구에는 첨단제조 분야 장비 구축·스타트업 육성 업무를 맡을 '서울창업허브 구로'가, 관악구에는 산·학·연계를 통해 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는 '서울창업허브 관악'이, 성동구에는 성장 단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스케일업을 서포트하는 '유니콘 창업허브'가 생긴다. /김현정 기자 hjk1@

오늘의 날씨: 10월 15일 (화) 음력: 9월 13일. 수도권 날씨: 17~24°C. 지역별 날씨: 인천 17/23, 서울 17/24, 수원 17/23, 평택 16/24, 파주 15/24, 가평 14/23, 양평 15/23, 용인 17/23, 동두천 15/23, 백령도 18/2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이스라엘에 사드 추가배치 의미는... '철통 방공망' 더 강화
▲美, 이스라엘에 병력 주둔... "이란과 분쟁에 적극 개입 의미" /사진 뉴스1

▲각국 덮친 中 '첩보공작 쓰나미'... 국제사회, 방첩 대응 고심
▲中합참기관, 드라마까지 동원해 외국 스파이 '경계령' 강화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9차 방류 완료... 7817t 처분
▲태국, 홍수 피해 치앙마이 복구 총력전... "관광객에 방문 보조금" /사진 뉴스1